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경춘선 복선 전철화(청량리역~춘천역) 사업으로 운행 중단된 광운대역~舊화랑대역~서울시계까지의 총6.3㎞의 폐선된 공간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유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4.2㎞)하여 공원 조성 후 철도로 단절된 지역 화합의 공간조성 및 동북지역 균형발전 도모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감 (B-A)	(B-A)*100/A
6,830	7,657	10,937	3,280	42.8%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경춘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장기 숙원사업인 공원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에 질 향상

○ 기존 철도 구간을 선형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지역과 하천, 산림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그린웨이 조성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경의·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536호(2009.11.18.)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계획, 시장방침 제176호(2013. 6.21.)

☐ 사업내용

○ 위　　치 : 경춘선 폐선 부지(광운대역 ~ 舊화랑대역 ~ 서울시계)

○ 규　　모 : 보상 1,118㎡, 조성공사 211,392㎡

- 폐선부지 125,862㎡, 시설녹지 85,530㎡

○ 사업기간 : 2009. 11 ~ 2016. 5

○ 사업내용 : 숲속 철길, 쉼터, 자전거길, 도심정원 조성 등

○ 총사업비 : 44,000백만원

☐ 2015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경춘선 폐선부지(광운대역~산업대3길고가철교, 육사섬거리~서울시계)

○ 사업규모 : 146,222㎡(4.1㎞)

○ 사업내용 : 자전거길 및 산책로, 녹지 등 시민 이용시설 조성

○ 소요예산(안) : 10,937백만원

- 설계비 431백만원, 보상비 968백만원, 공사비 8,743백만원, 감리비 768백만원
- 시설부대비 21백만원, 사무관리비 6백만원

☐ 추진경위

○ 2004.12.31 :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2007.08.23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59호)

○ 2007.11 ~ 2008.12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연구 용역

○ 2009.06 ~ 10 : 경춘선 기본계획안 현상공모(당선 :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 2009.11.18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536호)

○ 2009.12 ~ 2010. 1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2010.02.05 : 경춘선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0.12.21 : 경춘선 폐선부지 철도운행 중단

○ 2011.09.08 : 화랑대역 주변 국유지 사용 MOU 체결(시 ⇔ 육사)

○ 2012.02.17 : 경춘선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2.12.17 : 광운대역 ~ 육사삼거리 국유지 사용 MOU 체결(시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3.03.21 ~ 04.26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구상 변경계획 용역

○ 2013.06.21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76호)

○ 2013.10.10 :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 공사 착공

○ 2014.10.01 : 2단계 구간(경춘철교~산업대3길고가철교) 보완 설계 착수

○ 2015.05　　: 1단계 구간 공사 완료 및 3단계(잔여) 구간 보완 설계 착수

○ 2015.06　　: 2단계 구간 공사 착공

○ 2016.05　　: 2단계 구간 공사 완료 및 3단계(잔여) 구간 공사 착공

☐ 2015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6,830**	**7,657**	**10,937**	**3,280**
시설비	6,660	7,298	10,142	2,844
감리비	150	336	768	432
시설부대비	10	17	21	4
사무관리비	10	6	6	0
시설비	**6,660**	**7,298**	**10,142**	**16,694**
공통	311	406		△406
공덕제2철도건널목 ~육사삼거리 공원조성	6,303	6,673	154	△6,519
경춘철교~산업대3길고가철교 공원조성	46	219	9,557	9,338
잔여구간 공원조성			431	431
감리비	**150**	**336**	**768**	**602**
공덕제2철도건널목 ~육사삼거리 공원조성	150	85		△85
경춘철교~산업대3길고가철교 공원조성		251	768	517
시설부대비	**10**	**17**	**21**	**4**
공 통	10	17	21	4
사무관리비	**10**	**6**	**6**	**0**
공 통	10	6	6	0

☐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설계비 : 431백만원

· 광운대역 ~ 경춘철교 : 159백만원

- 실시설계 : 5,599백만원 × 2.84% ≒ 159백만원

· 육사삼거리 ~ 서울시계 : 222백만원

- 실시설계 : 7,847백만원 × 2.84% ≒ 222백만원

· 舊화랑대역사 주변

- 기본구상 : 3,300백만원 × 1.54% ≒ 50백만원

■ 보상비 : 968백만원

· 불법건축물 정비 : 968백만원

- 컨테이너 보상 : 64㎡ × 250천원 ≒ 16백만원
- 철골구조물 보상 : 2,375㎡ × 300천원 ≒ 712백만원
- 주거이전비 등 : 15세대 × 16백만원 ≒ 240백만원

■ 공원조성비 : 8,743백만원

· 경춘철교 ~ 산업대3길고가철교 53,860㎡ 공원조성 : 8,589백만원

- 조경공사 3,524백만원, 교량정비 809백만원, 전기·통신공사 2,598백만원, 관리실 1,450백만원, 폐기물처리 362백만원

· 공덕제2철도건널목 ~ 육사삼거리 식재 유지관리 : 154백만원

- 3,091백만원(1단계 식재공사비) × 5% ≒ 154백만원

■ 감리용역비 : 768백만원

· 경춘철교 ~ 산업대3길고가철교 책임감리용역 : 768백만원

- 8,743백만원 × 8.92%(책임감리) ≒ 768백만원

■ 시설부대비 : 21백만원

· 경춘철교 ~ 산업대3길고가철교 시설부대비 : 21백만원

- 8,742백만원 × 0.25% ≒ 21백만원

■ 사무관리비 : 6백만원

· 위원회 운영 : 150,000원 × 10명 × 4회 ≒ 6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공사발주 → 공사착공 → 공사시행 → 공사준공(사업완료)

○ 계약체결

- 공사방법 : 장기계속공사
- 입찰참가 : 단독 또는 공동 도급
- 입찰방법 : 제한입찰(시공능력공시액)
- 관리감독 : 책임감리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공원조성에 따라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우선시행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보완 설계후 공사 시행
- 경춘철교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선 보수, 보강 실시
- 국방부 및 문화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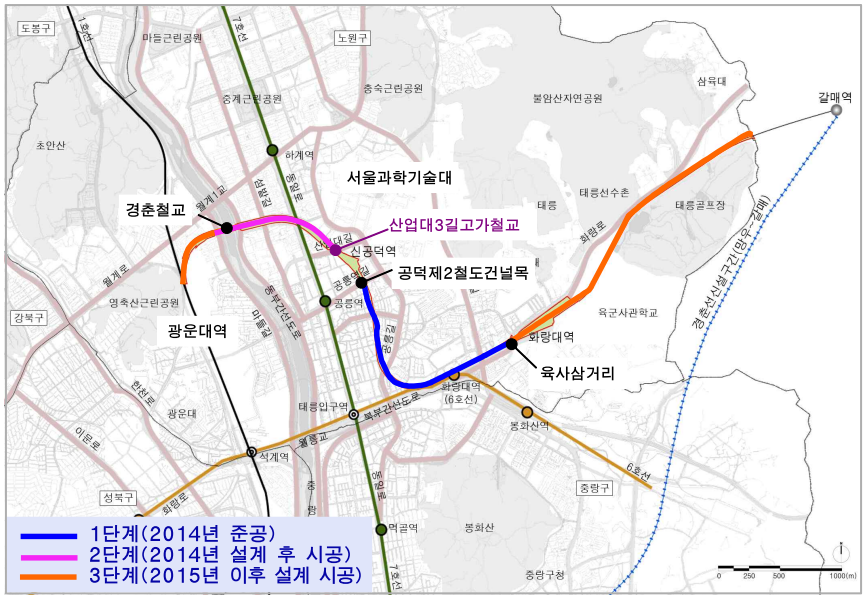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937	
공사대상지 보상	2015.1~12	968	
잔여구간 보완설계	2015.3~12	431	광운대역 ~ 경춘철교 육사삼거리 ~ 서울시계 설계
2단계 구간 공사발주	2015.4		경춘철교 ~ 산업대3길고가철교 공사 발주
1단계 구간 수목관리	2015.3~11	154	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 공원조성 공사지 수목 관리
2단계 구간 공사시행	2015.6~12	9,384	경춘철교 ~ 산업대3길고가철교 공사 시행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개발팀장	오대근 (2133-2059)	주무관	이용남 (2133-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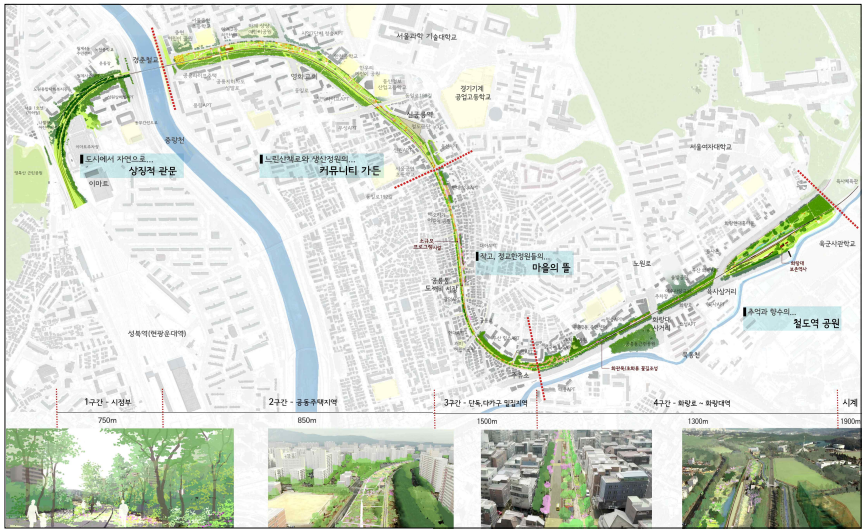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 위치도

☐ 단계별 공사 계획



☐ 공사 조감도



☐ 2015년도 조성지 사진

[경춘철교]

[중연초등학교옆]

[한천중학교옆]

[산업대3길고가철교]

☐ 관련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026면 종합

경춘선 폐선부지에 생태공원 만든다

성북~화랑대 4.2㎞ 구간 2015년까지 완공키로

옛 경춘선인 성북역~화랑대역 간 폐선부지 4.2㎞가 자전거도로, 쉼터, 산책길이 어우러진 주민 역사·생태 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지난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철도 운행이 중단된 후 2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서울시는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17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옛 경춘선 성북역~화랑대역 4.2㎞ 구간의 '경춘선 철도유휴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시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공단의 철도건설사업과 철도유휴지 자산개발 사업에 따른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 공단은 서울시의 경춘선 철도유휴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등 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 부지 제공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다.

행안부는 양 기관의 협력 사항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한다. 양측은 사업 구간과 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사업 구간은 국토해양부와 공단 소유인 성북역~화랑대역 4.2㎞ 구간의 철도유휴지(신공덕역사 부지 제외)로 지난 2010년 12월 철도 운행이 중단된 후 방치돼 왔다.

서울시는 설계 용역,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 31일 완공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경춘선 폐철로 구간 'S라인 공원' 만든다

서울시, 성북역~구리시 경계 녹지벨트 조성

2012년까지 철도박물관·자전거길 등 신설

내년 말 폐선되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경춘선 구간에 'S라인' 모양의 녹지·문화 벨트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총 978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 폐선되는 경춘선 성북역에서 서울시와 구리시의 경계까지 6.3㎞ 구간에 폭 20~80m, 면적 22만7000㎡ 규모로 'S'자 모양의 각종 테마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연내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 당선작을 결정한 뒤 내년 말 착공해 2012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테마공원 부지는 고려대의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폐선되는 공간이다. 폐선 구간을 대신해 많은 역~같매역 사이에 복선이 신설된다.

시는 폐철로의 노선 폭은 평균 11m에 불과하지만, 인근 녹지를 추가로 확보해 공원 폭을 최대 80m로 넓힐 계획이다. 이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공원 폭으로 공공용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해 공원 부지가 최대한 확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공원 주변의 서울여대와 서울산업대, 육군사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북역에서 공덕제2철도 건널목에 이르는 구간에는 철로 축제공간을 만들어 이곳에 각 대학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민들이 직접 가꿀 수 있는 이른바 '손바닥 정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덕 제2철도 건널목에서 서울·경기 경계선까지의 구간에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화랑로 일대에는 박물관, 전시관, 아트갤러리, 열차결리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성북역사에 테마공원 기념관, 공덕역사에 미술관, 화랑대역사에는 철도박물관을 각각 만들 계획이다.

폐선 구간 곳곳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수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철도로 단절됐던 봉암산과 태릉천, 중랑천이 동서로 연결돼 동북부 지역에 광역 생태녹지축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 면적(22만7000㎡)은 여의도공원(23만㎡)이나 양재시민의 숲(25만9000㎡)과 비슷하지만 선로를 따라 길게 선형으로 만들어져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 사업으로 노원, 도봉, 성북, 중랑, 강북구 등 동북부 5개 구 주민 22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춘선 폐철로 구간 테마 공원 조성 이후 조감도. 작은 사진은 경춘선 폐철로 구간 종합계획도. 서울시 제공

서울 정릉리역과 강원 춘천역을 잇는 철도였던 경춘선은 서울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성동역~성북역 구간이 철거되고, 현재는 성북역을 기점으로 하는 단선철도로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경춘선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공원은 북서울꿈의 숲, 중랑생태문화공원, 도봉식물생태원과 더불어 강북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朝鮮日報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A14면 사회

서울의 옛 경춘선 구간 6.3㎞, 공원 조성키로

광운대역~舊화랑대역 지나 서울 市界까지… 오늘 착공

여의도공원과 맞먹는 규모
플랫폼·철길 등 원형 보존하고
한강까지 잇는 자전거도로 조성

꽃·나무 관리에 주민 참여시켜
철로 탓 단절된 공동체 살리고
슬럼화 우려되던 주변 정비도

서울과 춘천을 잇던 경춘선이 다니던 철로가 74년 만에 공원으로 돌아온다. 그동안 철길로 인해 나뉘어 있던 동네도 70여년 만에 다시 연결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서울 성북구 광운대 역(옛 성북역)부터 구(舊)화랑대역을 지나 서울 시계까지 잇는 6.3㎞의 경춘선 폐선(廢線)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5일 첫 삽을 뜬다.

이 일대는 1939년 경춘선 개통 이래 73년간 서울과 경기 동북부를 지나 강원도 춘천을 잇던 경춘선이 다녔던 곳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21일 망우역에서 갈매역으로 경춘선 선로가 바뀌면서 폐선로가 됐다. 기찻길에 기차가 다니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소외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근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로 가득 찬 슬럼가가 됐다. 경춘선 선로로 나뉘 지역 주민들도 여전히 단절된 모습 그대로였다. 경춘선 철로 주변 되살리기는 서울 동북권 최대의 현안 사업이었다.

철길이 차지한 면적은 21만1170㎡에 달한다. 처음엔 주택단지를 만들자는 안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해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여의도공원(23만㎡) 규모의 공원이 서울 동북부에 새로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 공원을 길이 6.3㎞의 '도심 삼림욕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나무 등 49종의 나무 5만1837그루와 꽃 54종 31만3830송이를 심기로 했다. 나무와 꽃을 심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한다.

노원구 공릉동 인근 경춘선 폐부지. 서울시 제공

담장으로 단절된 지역은 담장을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신설하면서 70여년 동안 철로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공동체도 다시 합쳐지게 된다. 경춘선 폐선 지역에 남아 있는 추억 속의 화랑대역사, 플랫폼, 철길 등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폐기관차를 들여 북카페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철길 옆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조성, 중랑천·남양주시 등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할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강·중랑천·한강이 연결되는 '푸른 자전거길'을 만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원화 1단계 사업으로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재래시장과 일반주택이 밀집한 공덕 제2철도 건널목부터 육사삼거리까지 1.9㎞ 구간, 총 4만8170㎡ 넓이의 지역을 개발한다. 나머지 구간은 2단계·3단계로 나눠 작업을 진행한다. 2015년 말까지는 경춘선 폐선철로를 모두 도심 속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불암산, 중랑천, 영축산을 연결하는 도심 삼림욕장 공원이 탄생한다"며 "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동철 기자

東亞日報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A15면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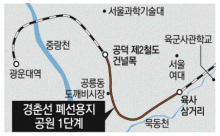
경춘선 폐선용지 6.3km S라인 공원으로

광운대역~옛 화랑대역~서울시계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조성

광운대역~옛 화랑대역~서울시계를 잇는 '경춘선 폐선용지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2010년 12월 경춘선이 망우역에서 갈매역으로 철길이 옮겨지면서 쓸모가 없어진 옛 구간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폐선 용지 전체 구간(6.3km)을 3단계로 나눠 2015년까지 △도심 숲길 △자전거길 △주민소통광장 등으로 구성된 공원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불암산 중랑천 영축산을 연결하는 'S라인'의 선형 공원이 탄생하게 된다.

우선 시는 1단계로 '공덕 제2철도 건널목~육사삼거리'(1.9km·4만8170m²) 구간에 착공한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철도로 단절돼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전통시장과 일반 주택이 밀집돼 있어 슬럼화가 심각했다.



시는 우선 주민들과 함께 전체 구간에 나무 49종 5만1000여 그루, 야생초화류 54종 31만3000여 송이를 심어 도심 숲길을 만들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취약했던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긴다. 담장으로 단절된 지역은 옹벽을 철거하거나 진출입로를 만들고 붕괴 위험이 높은 석축 및 옹벽은 철거 후 다시 설치한다. 또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옹벽 등으로 보완해 토사 유출을 막고 참나무 숲 조성과 야생초화류를 심을 예정이다.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장 입구 주변에는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북한강~중랑천~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도 조성한다. 또 폐선 지역에 남아있는 화랑대역사, 플랫폼, 철길을 보완해 경춘선의 추억을 살리고 폐기관차는 북카페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아시아투데이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019면 사회

경춘선 폐선부지, 녹색공원으로 재탄생

〈광운대역~서울시계〉

총 6.3㎞ 구간 착공… 2015년 완공
숲길 등 조성… 나무·야생화도 식재
옛 역사·철길은 관광자원 활용키로

이르면 2015년까지 경춘선 폐선 서울구간이 선형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옛 역사와 철길 등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5일 '경춘선 폐선부지 선형 공원화 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광운대역(옛 성북역)~옛 화랑대역~서울시계를 잇는 6.3㎞ 구간 약 21만1000㎡부지를 'S자' 형태의 선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는 우선 내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1단계구간인 공덕제2철도건널목(옛 신공덕역사 남쪽)~육사삼거리 잇는 1.9㎞구간 4만8170㎡부지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원은 도심숲길과 자전거길 등을 갖춰 주민 소통광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이를 위해 1단계 구간에는 큰나무와 키 작은나무 49종 5만1837주, 54종의 야생초화류 31만3860여본을 식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녹지공간 확보와 2010년 12월 경춘선 철도 운행 중단으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쌓이는 등 슬럼화됐던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중 80억원을 투입, 경춘철교~공덕제2철도건널목을 잇는 2단계 구간 2.4㎞에 대한 설계보완작업을 마무리한 후 약 6만6000㎡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20억원이 소요되는 3단계 구간의 경우 육사삼거리~서울시계 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문화재청·코레일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진행 중인 성북역사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해영 시 푸른도시국장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 불암산·중랑천·영축산을 연결하는 S라인의 선형공원이 탄생하게 된다"며 폐선 지역에 남아 있는 화랑대역사와 플랫폼·철길 등은 보전보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

국민일보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010면 사회

경춘선 폐선부지, 녹색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 '광운대역~서울시계' 6.3㎞ 구간 공원화 사업 시작

오늘 첫삽… 4만8170㎡에 도심숲길·자전거길 등 조성

"2015년엔 불암산·중랑천·영축산 잇는 선형공원 탄생"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된 경춘선 폐선부지 일대가 2015년까지 녹색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주변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운대역~옛 화랑대역~서울시계(市界)를 잇는 6.3㎞ 구간에 3단계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단계 착공식은 5일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옆에서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단계 구간은 오랜 기간 철도로 단절돼 소외된 공덕 제2철도 건널목(옛 신공덕역사 남쪽)~육사삼거리 간 1.9㎞다.

이 구간의 총 면적은 4만8170㎡로 시는 내년 말까지 도심숲길, 자전거길, 주민 소통광장이 들어선 녹색의 선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개 구간에 대해서도 설계보완 등을 통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전체 구간에 나무 49종 5만여 주와 초화류 54종 31만여 본을 심기로 했다. 특히 나무와 꽃을 심을 때부터 유지·관리까지 지역 주민들이 내 집 정원을 가꾸듯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간은 비워 두고 주민들이 스스로 꾸미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의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시켜주기로 했다.

오해영 시 푸른도시국장은 "완공될 경우 이 일대 불암산, 중랑천, 영축산을 연결하는 S라인의 선형 공원이 탄생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녹지공간이 확충될 것"이라며 "특히 2010년 12월 경춘선 운행 중단 이후 쓰레기가 쌓이고 슬럼화됐던 공릉동 도깨비시장 일대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취약했던 안전문제도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붕괴 위험이 높은 석축과 옹벽은 철거 후 재설치하고, 담장 등으로 단절된 지역에는 옹벽을 철거하거나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아울러 도깨비시장 입구 주변에는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를 조성,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을 통해 북한강과 중랑천 및 한강까지 이을 계획이다.

오 국장은 "폐선 부지에 남아있는 화랑대역사, 플랫폼, 철길 등은 보완해 옛 경춘선의 추억을 살리도록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묵 기자 jwchoi@kmib.co.kr

세계일보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012면 종합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오늘 첫 삽

서울시 2015년까지 사업 완료

박진영 기자

서울시는 노원구 광운대역에서 구화랑대역과 서울시계에 이르는 경춘선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착공식은 5일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옆에서 연다.

공사에 들어가는 구간은 3단계 구간(6.3㎞) 중 공덕제2철도건널목부터 육사삼거리에 이르는 1단계 구간(1.9㎞)으로, 면적은 4만8170㎡에 달한다.

2014년 말까지 도심숲길과 자전거길, 주민 소통광장이 들어선 공원으로 변신한다.

도심숲길은 나무 49종 5만1837그루와 야생초화류 54종 31만3860여본을 심어 만든다. 지역 주민이 관리에 동참하고 일부 공간은 비워두는 등 주민 참여로 만들어 나간다.

새터언덕 등 단차가 심하거나 담장으로 단절된 지역은 옹벽을 없애거나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붕괴 위험이 높은 석축이나 옹벽은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한다.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사면지역은 옹벽 등으로 보완하고 참나무와 야생초화류를 심는다. 도깨비시장 입구 주변에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중랑천, 남양주시)와 연계해 북한강과 중랑천, 한강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2015년까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면 불암산과 중랑천, 영축산을 연결하는 S라인의 선형 공원이 탄생한다"며 "화랑대역사나 철길 등은 보존하거나 보완해 경춘선 추억을 살리고 폐기관차를 설치해 북카페로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해 지역 개발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THE HANKYOREH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014면 수도권

사라진 옛 경춘선 자리 '공원화 사업' 첫삽

서울 광운대역~육사~시계 구간
도심숲길·자전거길·광장 등 조성

경춘선의 복선전철화로 폐선된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옛 성북역)~옛 화랑대역~서울시계를 잇는 6.3㎞ 구간이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5일 박원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옆에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은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완료된다.

이번에 착공하는 지역은 1단계 구간으로, 노원구 공덕제2철도 건널목~육사삼거리까지 1.9㎞ 구간이다. 전체 면적은 4만8170㎡에 이른다. 이곳은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돼 주변 환경이 열악하지만 재래시장과 주택이 밀집돼 있어 사업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꼽혀왔다. 공원 조성이 끝나면 녹지공간의 확충과 함께 2010년 12월 경춘선 철도 운행 중단 이후 생활 쓰레기가 쌓이고 슬럼화의 길을 걸어온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4년 말까지 이곳에 △도심숲길 △자전거길 △주민 소통광장 등을 만들어 녹색의 선형 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도심숲길에는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 49종 5만1800여 그루와 야생초화류 54종 31만3800여포기를 이식할 예정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불암산, 중랑천, 영축산을 잇는 에스(S)라인의 선형 공원이 탄생하게 된다. 경춘선의 추억을 살려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서울경제
2013년 11월 05일 화요일
A31면 사회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첫삽

서울시는 5일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옆에서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광운대역~구(舊) 화랑대역~서울시계를 잇는 6.3㎞ 구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5년 말 완공한다. 시는 내년까지 공덕 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 1.9㎞ 구간에 숲길, 자전거길, 주민 소통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